

# 14년전 박태환처럼... 팀 킴 “우리에게도 좋은 기운이”

오늘부터 컬링 열전 돌입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박태환 올림픽 제패한 곳서  
두 대회 연속 메달 도전

한국 여자 컬링국가대표팀 팀 킴(강원도청)이 태극전사의 기운을 받고 나선다. 김은정(32), 김선영(29), 김초희(26), 김경애(29), 김영미(31)로 이뤄진 팀 킴은 9일 베이징 내셔널 아쿠아티クス 센터에서 공식 훈련을 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6일 입국한 뒤 컬링장에서 가진 첫 훈련이다. 이튿날인 10일부터는 경기가 시작되는 만큼 이날 빙질 적응 훈련에 더 집중했다.

훈련 뒤 만난 김은정은 “빨리 아이스에 적응해서 우리가 가진 부분을 경기에서 보여드리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임명섭 감독도 “무조건 이기려고 하기 보다 아이스에 적응하는 게 첫 번째다. 정확하게 사타하고 선수들과 소통을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고 아이스에 잘 적응해 선수들이 실력 발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회 규정 상 첫 경기 하루 전인 9일에만 컬링장에서 훈련할 수 있던 팀 킴은 입국 후 개인 운동과 전력 분석 등을 하며 경기를 준비했다.

특별한 일정도 있었다. 지난 7일에는 쇼트트랙 경기장을 찾아 최민정(성남시청), 황대현(강원도청) 등 한국 선수단을 응원했다. 8일에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김민석(성남시청)의 동메달 획득을 지켜봤다.

김경애는 “선수들을 많이 응원하고 싶었다. 올림픽에 오면서 많이 즐기면서 준비하자”고 했는데, 다른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올림픽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첫 경기를 앞둔 컬링 국가대표 팀 킴이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내셔널 아쿠아티クス 센터에서 공식 훈련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김은정.

팀킴의 응원 속에 김민석은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메달 획득이다. 김경애는 “많이 응원했는데 김민석 선수가 우리를 보면서 많이 환호해주신 게 기억에 남는다”며 웃음을 지었다.

김민석 팬미인이다. 팀 킴은 한국 수영 관 박태환의 기운도 기대한다.

이번 대회 컬링 경기가 열리는 내셔널 아쿠아티クス 센터는 14년 전 만 19세의 박태환이 한국 수영 역사를 새롭게 쓴 장소다.

박태환은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1초88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아 남자 수영 선수가 올림픽 자유형 4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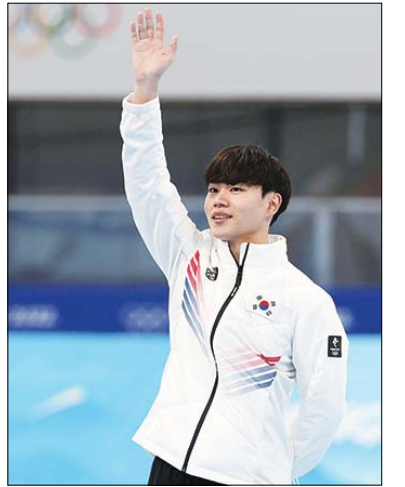
를 제패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김은정은 “좋은 결과가 있던 경기인 만큼 우리에게 좋은 기운으로 왔으면 좋겠다”며 박태환의 기운을 전했다. 그러면서 “큰 대회에서 끝나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고 할 때 몸이 굳으면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 팀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관중 논란이 일었던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도 팀 킴은 현장에서 지켜봤다. 김은정은 “안타까운 현장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나 분위기가 외溢했다”고 말했다.

개최국인 중국의 홈 텃세는 이제 대회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가 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육성 응원이 금지되지만 중국팀의 경기 때는 일반적으로 쏟아지는 관중 응원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은정은 “컬링은 선수 요정이 없으면 심판이나 코치가 개입할 수 없는 종목이다.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과 경기에서 시간적 제재나 마찰,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 조심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중 응원에 대해서는 “베이징에 오기 전 소음 훈련을 했다. 스피커로 관중 소리를 틀어놓고 훈련했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뉴시스



김민석, 문 대통령 축전에 “감사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빙속  
남 1500m 동메달 획득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축전을 받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이 고마움을 표함과 함께 자신의 선전이 다른 선수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9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축하를 전해주시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첫 메달이지만 다른 선수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남은 팀수월 종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은 전날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1분44초24로 3위를 차지했다. 4년 전 평창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종목 메달리스트가 된 김민석은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이 따낸 첫 메달이다. 문 대통령의 축전에는 “어려운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1500m 2연속 메달의 새 역사를 쓰며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선사했다”며 “오늘의 결실에는 수없이 많은 꿈과 노력이 있었을 것”, “정하고 자랑스럽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 태권도진흥재단 ‘대사범 지정’ 첫 발

4월 8일까지 추천·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주관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이 사업을 전담하는 ‘2022년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한 공고와 접수가 진행된다.

2022년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국내의 태권도 보급에 크게 기여한 태권도 고단자 사범 중에서 높은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귀감이 되는 사람을 지정해 명예를 기림과 함께 태권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태권도대사범 자격은 국가원 태권도 9단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사람,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 스포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직업윤리를 갖춘 사람,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짝수 해를 기준 격년마다 2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단 지정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2년 태권도대사범 기관 추천 및 개인 신청 마감은 4월 8일까지 태권도진흥재단에 접수



및 도박분에 한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진흥재단, 국가원 대한민국태권도 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태권도 대사범은 국가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비롯해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라며 “국내외에서 많은 추천 및 신청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직장폐쇄’ 메이저리그 “최악의 경우 개막까지 연기”

협상 장기화로 스프링캠프·시범경기 등 파행운영 불가피

‘직장폐쇄’로 위기를 맞고 있는 메이저리그(MLB)가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를 수 있을지 당초 메이저리그는 오는 17일(한국시간) 스프링캠프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시범경기를 치른 후 정 4월 1일 개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단과 선수노조가 마찰을 일으켰다. 구단들은 노사단체협약(CBA) 개정 민토 시한인 지난해 12월 2일까지 선수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구단은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사치세, 프리에이전트(FTA) 규정, 연봉 조정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선수들은 훈련할 장소를 잃었다. 적은 훈련은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리그 전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8일 마틴 웰시 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협상을 중용할 뿐 뚜렷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 롬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스프링캠프 개최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일정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장기화 될 경우, 개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후 결과 뒤집힌 사례는?

의도적 조작·매수 드러나지 않는 이상 판정 결과 반복 어려움  
심판 판정·운영과 무관한 대회 출전·메달 수여 등은 구제받기도  
박태환, 도핑 징계후 대한체육회 규정에 항의... CAS서 ‘승소’ 출전

한국 선수단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 있었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윤홍근 선수단장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춰 CAS에 제소하겠다. 다시는 국제 빙상계 및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황대현(강원도청), 이준서(한국체대)는 7일 1000m 준결승에서 각각 1위,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페널티 판정을 결승에 가지 못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CAS는 스포츠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84년 설립된 국제기관이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벌어지는 선수 자격 시비, 약물 시비, 판정 시비 등의 분쟁을 주로 다룬다.

한국 스포츠가 심판 판정 시비로 CAS 제소를 결정한 건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기계제조 업체인 사인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양태영은 기계제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아 57.823점을 기록한 폴 햄(미국)에게 0.049점 차로 뒤지며 금메달을 놓쳤다.

그런데 이후 심판의 오심이 드러났다. 심판 1명이 양태영의 평행봉 점수에서 가산점 0.2점의 연가를 0.1점으로 잘못 계산한 것.

이후 국제체육연맹(FIG)은 심판의 오심과 그로 인해 양태영이 손해를 입어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주심과 기술심판 등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당시 한국 스포츠계는 제소 경험 부족으로 절차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CAS는 기각을 결정했다.

CAS는 “승부 조작, 심판 매수가 아닌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반복 대상이 아니

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의 단순 실수로 본 것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펜싱의 신아람도 역을 한 판정으로 눈물을 터뜨렸다.

신아람은 여자 에페 준결승에서 심판이 마지막 1초를 너무 길게 적용해 역전패의 희생양이 됐다. 동시타가 두 번이나 나오는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결국 세 번째로 재개된 경기에서 점수를 내줘 패했다.

정상적인 진행이었다면 시간이 흘러 신아람의 승리로 끝났어야 할 경기였다. 국제펜싱연맹(IFE)은 “기술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분석해 한국의 항의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림픽 기간에 항의에 대응하는 공식기구인 기술위원회는 한국의 항의가 근거 없다고 결론지었다.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심판이 하이데만의 특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쇼트트랙 판정 이슈에 대한 국제빙상연맹(ISU)의 답변과 유사하다.

ISU는 전날 한국과 헝가리의 판정 항의에 대해 “엄격한 규정과 상관없이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함께 재검토했고,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닝올림픽 당시 한국은 CAS 제소를 검토했지만 “판정에 부정이 개입하거나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기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언에 따라 끌고 가지 않았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선 피겨의 김연아가 아델라나 소트니코바(러시아)에게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판의 채점 기준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들끓었고, ISU에 제소했으나 기각됐

다. 대한체육회와 빙상경기연맹은 CAS에 가지 않았다.

일차적으로 심판의 판정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제소한다 해도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현실적으로 판정이나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의도성을 확인한다는 것도 모호하다.

ISU 국제심판인 최우규 쇼트트랙 지원단장은 쇼트트랙 판정 이슈와 관련해 “(후후에도 오심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순간 심판의 모든 것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정말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유감’ 정도는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경기 운영, 판정 시비가 아닌 부분에 선 일부 CAS를 통해 구제받은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수영의 박태환이다. 박태환은 2008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이미 도핑 자격정지 징계가 끝났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몰렸다.

같은 해 CAS는 선수의 손을 들어줬고, 박태환은 리우에 갈 수 있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박종우가 CAS 재판대에 섰다.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기쁨의 세리머니를 펼쳤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정치적 행위로 판단했다. 박종우에게 IOC 현장 50초 ‘올림픽에서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적용됐고, 동메달을 받지 못했다.

CAS 제소 끝에 박종우는 뒤늦게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육상 여자 400m, 1600m 계주에서 미국이 각각 동메달,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이후 함께 뛰었던 매리언 존스(미국)의 약물 복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IOC가 계주팀 모두의 메달 박탈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 계주팀 선수들은 존스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모두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며 CAS에 제소했고, CAS는 2010년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